



도로시의 오즈의 마법사 모험

tiffany lee





캔자스의 넓은 평원에 사는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녀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도로시의 작은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두둥실 떠오른 집은 구름을 지나 아득히 먼 이상한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신비로운 오즈의 나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집에 돌아가려면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도로시는 반짝이는 빨간 구두를 신고 해바라기밭을 지나 노란 벽돌 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노란 벽돌 길을 걷던 도로시는 옥수수밭에서 짚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를 만났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뇌를 갖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는 도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여행에 합류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힘을 모아 빼격거리는 걸음으로 신나게 길을 나섰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녹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양철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도로시가 기름통으로 기름을 칠해주자 움직이게 된 양철 나무꾼은 따뜻하게 땀 수 있는 심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시에게는 마음씨 착한 새로운 동반자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숲길을 계속 걷던 중,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우
렁차게 울부짖었지만 사실은 둥근 겁쟁이 사자였습
니다. 겁은 많지만 사실은 용감해지고 싶었던 사자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네 친구와 강아지 토토는 더욱 끈끈해진 우정으로 붉
은 양귀비꽃이 가득한 들판을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눈부신 에 메랄드 시티의 성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거대한 초록색 문을 지나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웅장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법사의 방에서 커다란 환영을 만난 친구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의 나쁜 마녀를 물리쳐야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는 마법사의 말에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용기
를 내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힘든 시련 앞에서도 네
친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 위험을 이겨내고 나쁜 마녀를 물 한 양동이로 물리친 도로시와 친구들은 성으로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는 마법이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친구들에게 허수아비에게는 지혜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의 징표를 선물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착한 마녀 글린다가 나타나 빨간 구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구두 뒷굽을 세 번 치며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외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든 친구들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도로시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치자 순식간에 바람이 불며 도로시와 토토는 그리운 캔자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의 따뜻한 품에 안긴 도로시는 자신의 작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